

서울구청장 선거 이곳이 기대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일 만에 열린다.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도 지방선거를 한차례 휘감은 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완패를 당한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행정 권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송영길 등 지난 대선의 주역들이 등판하며 두 번 연속 대형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각 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8~9곳 승리를 목표로 잡은 가운데, 19일부터 대망의 공식선거운동 막이 오른다.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거일 현황판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

국힘, 지난 지선완패 설욕 vs 민주, 대선·지선 연패 ‘차단’

종로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정문헌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19일 공식 선거운동 막 올라

서울시민의 민생과 행정을 책임질 구청장 선거는 ‘구·시·군의 장 선거’ 급에서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는다. 1000만에 가까운 인구나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제7회 지선은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인한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해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도 속에서 치러졌다. 이에 서울은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區)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강남3구’에서도 민주당에 두곳을 뺏긴 것이 뼈아팠다.

대선과 총선보다 관심이 떨어져 투표율이 낮게 형성되는 지선에 특성에 따라 각 당의 후보들이 시장 후보, 지역구 의원을 필두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뽑힌다.

◆ ‘김영종 시대 종언’ 정치 1번지 종로 서울 종로구는 정치 1번지로 뽑힌다. 청와대, 헌법재판소, 외교부 청사 등 국가기관이 밀집해있고 중요국의 대사관, 대형 언론사 등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종로에서 의원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올라 국정 운영을 한 바 있다.

종로는 김영종 전 구청장(민주당)이 2010년부터 3선을 내리 당선된 곳이다. 연임 제한에 걸린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연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되자 당의 무공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출마 후 낙선했다.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 ‘황무지’가 된 종로구에선 정문헌 국민의힘 후보와 유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

정문헌 후보는 강원 속초·고성·양양 재선 의원 출신으로 급을 낮춰서 출마했다. 정 후보는 의정 경험과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지역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찬종 후보는 1998년 종로 교남동의

종로구, 정문헌 vs 유찬종

靑·헌재·외교부 등 국가기관 밀집 현직 프리미엄 없는 ‘황무지’ 대결

예비후보들 과열 ‘강남3구’

대선서 尹, 이재명에 29%p차 압승 민주, 지선 패거 수성 녹록지 않아

용산구, 박희영 vs 김철식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민심 엇갈려 3선 성장현 구청장 연임제한 걸려

최연소 종로구의원으로 당선돼 지역 정계에 입문했고 서울시의원 등을 지낸 ‘지역통’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난 대선과 함께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52.09%의 지지를 받아 28.41%를 얻은 김영종 후보에 30% 포인트 가량 앞서면서 종로 민심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강남3구’에 깃발 꽂나

‘전세는 뒤집혔다?’

민주당은 지난 지선에서 강남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가져오는 패거리를 누렸지만 이번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3구에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서 모두 앞섰는데, 그 격차의 평균은 28.74%포인트다. 그래서 서초·강남구청장 당내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들끼리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유일하게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서초에선 조은희 전 구청장이 지난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상황이다. 전성수 전 인천부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법조인인 김기영 민주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강남구청장 선거에선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이 출마한다. 그는 강남 지역 대형 마트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직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송파에서도 현직 구청장과 서울시교위 공무원 출신 후보가 맞붙는다. 서강

석 국민의힘 후보는 제2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재무국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한 역량을 앞세운다.

반면 18년 만에 구정 교체를 이뤄낸 박성수 후보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역에서 10년 간 누빈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2회 연속 구청장 당선을 노린다.

◆‘윤(尹)의 이웃’ 용산주민들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웃이 된 용산 주민들의 선택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도 선거의 보는 재미를 더한다.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 달 만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서 지역 민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3선을 지낸 성장현 용산구청장(민주당)이 연임 제한에 걸리면서 ‘현직 프리미엄’ 없이 후보 간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인 것처럼 부촌과 서민 주거지역이 뒤섞인 용산구도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 정책특보를 지낸 박희영 후보가 출마하는 반면 민주당에선 용산구의회에서 3선을 한 김철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최연소 구청장 도전’ VS ‘文 내부고발자’

서울 강서구에선 대한민국 정치들이 끌어갈 정치 신인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에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구청장에 도전한다. 김태우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파견됐으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난 총선에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강서에서 붙어 낙선했다.

민주당은 김승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마한다. 김 후보는 1987년생 올해로 35세로 최연소 강서구청장에 도전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국회의원 비서관, 서울시 정부부시장실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번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까지 반영된 ‘시민 공천배심원제’를 통해 가려진 후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서초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전성수 더불어민주당 김기연

용산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박희영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강서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김태우 더불어민주당 김승현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 42돌 5·18 기념식... ‘국민통합’ 방점
▲ 2년 만에 부활한 5·18 전야제... 시민 참여 행사로 /사진 뉴스

▲ 경찰, 한동훈 ‘장녀 논문대필’ 의혹 수사...반부패수사대 배당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자금 제공한 2명 구속 기소



▲ 이상민 “청문회 때 적절치 않은 언행 송구”...국회에 사과
▲ 공수처,尹고발건 2건 각하...‘불소추 특권’ 때문은 아닌 듯